JKII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2: 294~300, Feb. 2021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이성옥[1] · 정회경[1*]

A Study on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ungock Lee[1] · Hoekyung Jung[1*]

[1*]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훈련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밍 교육훈련에 20여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A 교사를 내러티브 연구방식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문제인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의 시간적 흐름을 거치면서 총 12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A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사교육경험이 직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근무한 기간, 소속된 기관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책과 이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grasping how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who teach programming in vocational training field was formed. Teacher A, who has been engaged in programm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over 20 years, was interviewed in a narrative research. For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occupational ident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forming occupational identity of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to examine its meaning.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a wide range of experiences targeting various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ccording to age, working period, and affiliated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cies and issues experienced in the field.

키워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정체성 형성과정, 직업정체성, 내러티브 연구

Keywords : Vocational training teacher, Programm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ccupational identity, Narrative research

Received 20 October 2020, **Revised** 11 January 2021, **Accepted** 11 January 2021

*** Corresponding Author** Hoekyung Jung(E-mail:hkjung@pcu.ac.kr, Tel:+82-42-520-5640)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1.25.2.294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Ⅰ. 서 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분야에 교사가 된다는 것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시연과 전달뿐만 아닌 성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요구된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은 족집게 강사가 아닌 우리에게 마음을 쓰며 애정을 갖고 헌신하셨던 분들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스펙에 실무 기술이 확보된다 한들 훈련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는 작업자나 다름없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참여 조건은 현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여도 직업훈련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교육적으로 소양 없는 교·강사들도 훈련 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성인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강사들이 투입되는 경우, 훈련생들의 기술 습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자연스레 훈련생들은 취업에 애로를 겪게 되고 낮은 실적을 초래하여 훈련 기관과 훈련교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교사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한 훈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된다. 총체적으로 훈련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열악한 민간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대안은 여러 곳에서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훈련 교·강사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훈련 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해왔다. 교·강사 처우개선 추진과제에 따른 조치를 필요사항으로 추가하여 교·강사의 고용조건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왔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용시장까지 움추린 탓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직업훈련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훈련의 질이 높아지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2].

현장기술자의 교사활용은 현장성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훈련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성인 훈련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전적인 시점에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제2의 도약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만을 전달하는 기능인이 아닌 교사로서 다른 역할도 수반된다. 지식전달, 조력자, 상담자, 평가자 등이 포함되며 무엇보다 직업세계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가진 직업인이 되도록 견인해야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는 제 2의 도약기에 있는 성인학습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 개인의 정체성은 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 온전한 직업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정체성이 확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성취를 통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하게 된다. 교사라는 역할모델 즉, 온전한 직업정체성과 직업윤리를 가진 교사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투영될 때에 학생들도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의 주된 흐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하여 국한되었다[1]. 역할과 역량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 의식세계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년 이상 프로그래밍 분야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서 살아온 A 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직업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심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에서 자신의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이다. 직업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유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과되고 지각된 수많은 역할이다. 직업정체성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3].

교사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변화한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일시에 측정 가능한 양적 연구보다는 과정과 맥락이 드러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져왔다.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내러티브 방법을 선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단체 등에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설계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며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삶의 밀도 있는 경험을 탐구하는데 가장 적합하다[4]. 또한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이 겪는 삶의 체험을 구술하고 이야기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5].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내러티브(narrative)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McAdams는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과거를 다시 만들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깨달아 자기를 내면화하고 변화되어 가는 생애 이야기”라고 정의했다. McAdams는 자신의 생애 이야기가 현재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준 과거의 삶은 어떤 모습이며,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미래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삶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러티브를 통하여 표현된다. 직업정체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탐구할 수 있다[6].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적인 삶의 방법, 즉 개인의 교육 활동과 삶에 대하여 말하고(tell), 다시 말하고(retell), 살고(live), 다시 사는(relive)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스스로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에서의 '개인적이며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을 강조하였는데, 이 ‘개인적이며 실천적 지식’은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 개인적, 실천적 성격에 가깝다. 다수의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아닌, 한 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삶의 대한 경험이야말로 매우 고유하고 독특한 개인적이며 실천적 지식이다[7].

본 연구에서는 20년 이상 프로그래밍 분야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직업에 종사해온 연구 참여자의 삶과 의미를 구체적 사건과 경험, 시공간과 시계열에 맞물려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가 표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내러티브 탐구절차를 수행하였다. 단계는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동하기’, ‘연구텍스트 구성하기’의 순서에 따른다. 이 단계는 각각의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와 단계가 서로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다. 각 단계의 수행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에 주력하였다[4].

Table. 1 Steps of narrative inquiry procedure

Step	Procedure
1	Getting into the field
2	Going from site to site text
3	Constructing the field text
4	Moving 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5	Organizing research text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해석하였다.

McAdams는 인터뷰에서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내용은 표 2와 같다. 각 사건에 관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하여 반추하였다. 여덟 가지 주제에 따른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가 부여된 사건에 관하여 재해석하고 편집 혹은 재편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그들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깨달

았는지 기억의 회상에 담겨있는 참여자의 삶과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A교사는 대학 시간 강사를 시작으로 실무와 사업, 강의를 오가며 직업훈련 기관에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는 민간기관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기반 프로그래밍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강의 분야는 빅데이터, 응용sw개발, 웹개발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를 지도한다.

연구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 과정에 자의적인 해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는 등 연구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8].

Table. 2 Eight thematic contents of McAdams' interview style

Subject	Contents	Question
Best experience	The best experience I've ever had on a specific topic that's been fun, exciting, and happy	What was the best experience in your life as a teacher?
Worst experience	Worst experience as opposed to best experience	What was your worst experience in your life as a teacher?
Turning point	The experience of turning point in life when looking back on life Experience some significant changes when a critical turning point is not found	What is a turning point in a teacher's life?
Positive experiences from childhood	Positive and happy memories of childhood	What was your good childhood memory?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Experiences of sadness, fear, and negative emotions from childhood	What are your difficult memories of childhood?
Vivid memories of adulthood	Best and worst experiences, vivid memories of adulthood not mentioned at the turning point	Are there any important events that you can remember in adulthood?
A wise case	Case, counsel, advice, or choice that was wisely resolved	What are some experiences or events you have solved wisely or wisely in your life?
Religious/ spiritual or mystical experience	Religious, spiritual, or mysterious experiences with or without religion	What are some mystical or spiritual experiences you have experienced in your life?

Ⅳ. 결 과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12개의 주제와 그에 따른 주요 경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경험은 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거치며 발견된다(표 3).

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안정적인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그만두기)

부모님의 권유로 행정 관료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한 세무직 공무원은 자신이 원하던 진로가 아니었다. A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하였고 '학업'에 대한 갈망을 이루고자 사표를 냈다.

② 어깨너머로 배운 코딩에 깊이 빠지다.

배움의 꿈을 이루고자 안정적인 행정 공무원을 내려놓고 병원에 세무파트에 해당하는 분야로 취업하였다. 동시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였다.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어깨너머로 배운 코딩에 몰입하여 전문가가 되어 활동하였다. 일경험이 선행되었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학업 트랙에 니즈를 느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다시 컴퓨터공학 학부 1학년에 입학하여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다. 현장에서 실무 전문가가 되고 난 후 학업을 다시 쌓은 그에게 이러한 범상치 않은 경험은 향후 프로젝트법 교수법을 채택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③ 대학원에서 가르침의 즐거움을 맛보다.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시간강사로 학부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강단에 서자공무원 생활과 직장경험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미래의 교사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동시에 현장에서 배운 교육학적 이론을 풀어내며 실제로 그 때 그 때 적용하며 자신만의 교수법을 확립시켰다.

④ 얼떨결에 직업훈련 기관에 진입하다.

A 교사는 직업훈련 기관과 전문 대학교가 동일한 범주의 고등교육기관인 줄 알고 입사지원을 하였다.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직업훈련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강의와 기획을 동시에 담당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였다.

⑤ 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복귀하였다.

두 명의 자녀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감행하였다. 삶의 터전을 옮긴 A교사는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창업을 하였으나 2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다. 본인의 천직이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자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며 훈련 기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신의 業(업)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대하게 된다.

⑥ 현장성 있는 언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다.

현장에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던 트렌디한 프로그래밍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가르치지 않았던 개발 언어를 A교사는 자신이 직접 배워서 가르쳤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개발 사업을 했던 경험은 A교사에게 있어 '현장성'을 반영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학습한 다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과업(Task)을 해결하도록 수업을 이끌어갔다. A교사는 자신만의 프로젝트 교수법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시켰다.

⑦ 프로그래머와 교사로서의 접합점을 찾고 이 직업에 자신을 쏟다.

이 직업을 '좋아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A교사는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교사로서도 교육적 보람을 느낀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A교사는 이 직업은 자신에게 있어 생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삶에 보람을 주는 천직이라고 믿게 된다.

⑧ 응용력의 지름길, 프로젝트법을 고수하다.

자신이 개발자가 되도록 이끈 과업을 통한 학습방법인 프로젝트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였다. 그는 개발자와 학력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실제 일머리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며 자신의 모든 과정에 프로젝트법을 도입하였다. 과업을 실행하며 지도하였더니 학생들이 프로그래머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이 개발되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전문 직업인으로 근무하게 될 학생들이 능동적・주도적인 프로그래머로서의 직업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채근하였다. 교육생임에도 불구하고 A교사의 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몰입도로 직업훈련과정에 임하게 되었다[9].

⑨ 교육의 핵심은 '행동의 변화' 나는 체험자!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통하여 실업자에서 직업인으로 취업하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엄청난 행동 변화'라고 인식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사실, 즉 제자들이 자신을 매개체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프로그래머'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 점에 희열을 느낀다.

⑩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제자들과 함께 코딩하며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성취하는 과정이 기쁘다.

⑪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기

A교사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한다.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자신만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후배교사, 개발자,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스코드를 거리낌없이 오픈한다. 그는 개발 플랫폼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지식공유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⑫ '내 힘이 닿는 한' 기술 전수

A교사는 예순이 넘었다. 은퇴 시점이 한참 지났어도 기력이 다할 때까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인생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그는 노동할 수 있음에 감사해하며 교사로서의 자신의 직업 행위를 지속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Table. 3 12 major experiences of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No	12 themes
1	The process of finding oneself
2	He deeply indulged in the coding that he learned over the shoulder.
3	He tasted the joy of teaching in graduate school.
4	He started working as a vocational training teacher.
5	He tried to run his own business but failed soon. After his failure, he returned to his job as a vocational training teacher
6	Among all the teachers, he first tried to teach a trendy programming language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7	He found a junction between a programmer and a teacher and devoted himself to this profession.
8	He adhered to the PBT(Project Based Training).
9	He personally experienced the "change in student behavior", the core of education.

No	12 themes
10	He worked with his students to solve a new problem.
11	He generously revealed his skills.
12	He wants to pass on his skills to his juniors.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하여 탐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A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은 4가지 시간적 흐름(입직전, 입직, 성장, 성숙)에 따라 발견된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탐구과정과 직업/교육적 경험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입직하기 전에 선행되었다. 일과 학업에 대한 독특하며 직접적인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확고한 교육적 철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프로그래머로서 일 현장에서 날코딩을 배웠던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교육학(컴퓨터 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적용점을 찾았다. 행동주의, 구성주의 교수법에서 직업훈련에 활용 가능한 장점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였다[10]. 인생의 굽이굽이를 거치며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이 직업이 자신의 '업'임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안정성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할 것이라는 그는 은퇴시점이 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의 소망은 이 직업을 계속 영위하며 후배 교사와 제자를 양성함에 있다. 이러한 A교사에게 관찰되는 모습은 유홍준의 연구결과 즉, 직업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목적과 직업에 대한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11].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근무한 기간, 소속된 기관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책과 이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인생과 교육에 대한 밝은 면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 Chai University in 2020.

References

[1] Newsis. Vocation Training System Reinforcement for Digital Economy[Internet]. Available: https://www.news1.kr/articles/?4018815.

[2] M. R. Choi and K. S. Yoon, "A Study of the Role and Competencies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267-294, 2011.

[3] S. O. Lee, "A Narrative Study on Occupational Identit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with Self-Esteem," Ph. D. dissertation, Koreatech, Cheonan, 2020.

[4] D. J. Clandinin and F. M. Connelly,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5] H. S. Youn, "A Narrative Inquiry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based on the experience of a first-head teach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20, no. 4, pp. 19-32, Feb. 2016.

[6] D. P. McAdams, *The life story interview*,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1997.

[7] J. H. Kim, S. J. Kim, and I. S. Park, "Narrative Inquiry on Lives of Dual-Licensed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ver 10yea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1, pp. 209-222, Feb. 2014.

[8]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2019.

[9] C. H. Oh and Y. S. Park, "Study of Problem Based Learning for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 and its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12, pp. 2325-2332, Dec. 2017.

[10] K. C. Hong and Y. S. Cho, "A Novel Engineering and Creative Learning Process Based on Constructionism,"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vol. 17, no. 3, pp. 213-220, Sep. 2019.

[11] H. J. Yoo, T. Y. Yoo, and T. I. Jeong, "Scal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Identity and Testing Model of Antecedents and outcome variables of Occupatio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7, no. 4, pp. 617-645, Nov. 2014.

이성옥(Sungock Lee)

2015년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박사
2015년 ~ 2020년 8월 ㈜글로벌인재개발 이사
2020년 9월 ~ 현재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직업훈련, AI, 빅데이터, VR, IoT, Big Data

정회경(Hoekyung Jung)

1985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1987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1993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1994년 ~ 현재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IoT, Machine learning, Bigdata, Embedded system